

공무원·공기업 여성에 가산점

채용시험때 과목당 5~10점 부여 추진 95.
(10.7)

정부는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고용 확대대책과 관련공무원 공채에서 일정률(15~20%)의 여성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여성응시자에게 과목당 5~10점 수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 및 재경원·총무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앞으로 3년 이내에 여성응시자가 전체 채용인원의 15%에, 그리고 5년 이내에 20%에 이르도록 과목당 5점에서 10점 사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7급 일반행정직 공채에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여성채용자의 비율이 20%에 이르도록 과목당 5점 이상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경우 여성들의 면접탈락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필기시험에서는 군필자들이 받는 과목당 가산점 5점씩을 여성응시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최종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남녀 비율에 맞춰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흥구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순수한 고용할당제에 초점을 맞춰 여성고용대책을 논의했으나 많은 문제가 제기돼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가산점의 수준은 최소한 군필 남성에게 부여되는 과목당 5점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병찬 기자